
濟州道 中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調查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姜 德 富

指導教授 金 恒 元

1986年 月 日

姜德富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 審 _____ ㉠

副 審 _____ ㉠

副 審 _____ ㉠

1986年 月 日

目 次

I. 序 論	3
II. 理論的 背景	5
1. 價値와 價値觀의 概念	5
2. 價値觀의 形成과 變化	7
3. 價値觀의 分類	8
4. 先行研究 및 概念模型의 設定	10
III. 研究方法	13
1. 測定道具	13
2. 標 集	13
3. 資料處理	14
IV. 結果 및 論議	15
1. 個人生活	15
2. 社會生活	17
3. 國家生活	20
4. 反共生活	22
V. 結論：要約 및 提言	31
參考文獻	34
附 錄	37

表 目 次

(表 1) 價値・態度・動機・動因間の 關係	8
(表 2) 價値觀의 概念模型	11
(表 3) 調査道具의 構成內容 및 問項數	13
(表 4) 地域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數 回收現況	14
(表 5) 背景變因別 標集 人員數	14
(表 6) 個人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15
(表 7) 社會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18
(表 8) 國家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20
(表 9) 反共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23
(表 10)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	26
(表 11) 學年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	27
(表 12) 地域別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	29

I. 序 論

價値란 人間으로 하여금 行爲規範과 行爲選擇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다. 그리고, 특히 靑少年에게 올바른 價値觀을 갖게 하는 것은 밝은 來日의 世界와 傳統文化를 이어나갈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社會를 建設하려면 靑少年들의 건전한 價値觀이 必要한 것이라 하겠다.

韓國의 靑少年들은 近代化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傳統的인 價値觀으로부터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價値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운 科學과 技術의 發達, 發明, 그리고 개인의 종교적 信仰과 이데올로기 등의 변화에 의하여 社會變動은 더욱 가속화되고 새로운 지식, 제도, 상품, 환경 등에 미쳐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음을 말해 준다.¹⁾

이와 같이 變動이 심한 社會에서는 과거의 文化를 전승시키기 위한 教育만으로는 不充分하기 때문에 우리 社會는 자라나는 世代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價値觀을 심어 주기 위한 價値教育의 暢達내지 道德教育의 振作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속한 社會變動에 따른 傳統的 價値體制의 격심한 互解에도 불구하고, 이에 代置할 수 있는 새로운 價値觀의 確立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혼돈 등 갖가지 우려할 만한 사태가 점점 더 팽배·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過渡期的 現象은 특히 아동기에서부터 성년기에로의 移行이라고 하는 過渡期를 겪고 있는 靑少年들에게는 그 영향이 한층 더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靑少年 問題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게 現今의 실정이다.²⁾

靑少年들이 어떤 價値觀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비단 그들 個個人에게 있어서 당장의 行爲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個個人의 사람됨됨이는 물론이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靑少年들이 현재 內面化하고 있는 道德的 信念내지 價値觀의 정확한 실태와 그때 그때의 변천상은 그들의 教育과 國家 社會의 前途를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결코 度外視해 버릴 수 없는 문제

1) 鄭範模, 「價値觀과 教育」(서울:배영사, 1973), pp. 23~24.

2) 宋尙舜, “道德的 諸問題와 德目에 관한 靑少年의 價値觀 調查研究.” 濟州教育大學 論文集 제12집, 1982, pp. 71.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靑少年들의 價値觀의 變化를 끊임없이 조사·파악하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狀態에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활발하고 진지한 論議와 檢討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학생들의 價値觀에 관한 調査·分析은 現場教育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학생 생활 지도와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에 매우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本 研究의 目的은 濟州道 中學生의 價値觀을 調査 研究함으로써 價値教育의 問題點을 찾아내어 道德教育의 方法을 개선하고 靑少年問題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려는 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1. 價値와 價値觀의 概念

價値는 적용되는 對象이나 觀點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個人的 立場이나 社會的 立場, 그리고 現在와 未來의 경우 또한 그 概念上的 定義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價値(Values)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지난 數千年 동안 많은 思想家들이 絕對的인 基準을 세우기 위하여 힘든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 수많은 倫理說들이 등장하였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爭點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價値와 價値觀의 定義를 살펴보면, 李烘雨는 한 個人的 價値란 그가 價値判斷의 근거를 提示할 때 그가 채택할 수 있는 各各의 觀點에 해당하는 基準이나 規則, 또는 位階³⁾라고 定義하였고, 李奎浩는 人間이 그의 歷史的, 社會的으로 多樣한 生活樣式을 통해서 늘 追求하고, 바라고, 實現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⁴⁾을 價値라고 했다.

또한, R. M. William(1952)은 價値를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선호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一定한 狀況, 事件 및 事物을 지적하는 用語라고 前提하고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⁵⁾

첫째, 價値는 概念要素로서 感覺, 情緒, 反射, 欲求등의 水準을 넘어서는 各 個人的 經驗에서 抽象化되는 것이다.

둘째, 價値는 道具的인 行動의 目標가 아니라, 目標를 選定하는 基準이다.

셋째, 價値는 情意的 特性으로 感情의 現實 및 잠재적 動員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넷째, 價値는 人間行動에 組織과 方向을 提示해주는 情緒的 性質을 띤 規範 原理이다.

C. Kluckhohn(1962)과 그의 동료들은 價値란 利用 可能的인 行動의 目標, 手段, 樣式의 選擇에 영향을 주는 個人이나 集團이 特異하게 所有하고 있는 所望 對象에 對한 外顯的 혹은 內在的인 概念⁶⁾이라고 定義하였으며, R. Linton(1947)은 一聯의 狀況에 共通的으로

3) 李烘雨, 「價値觀의 定立을 爲한 教育의 役割과 關係」 教育科學 54호,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1972)

4) 李奎浩, 「價値觀의 變化와 教育의 課題」 「새教育」통권 274호, 1977. pp. 64~65.

5) R. M. Williams, *American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52), pp. 374~375: 朴九守, “教師의 價値觀傾向에 關한 研究.” (부산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pp. 14에서 재 인용.

6) C. Kluckhohn, and Others,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eds. T. Parsons, and E. A. Shils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pp. 395~411: 朴九守, 전계서, pp. 15.

存在하고 個人의 內面的 反應을 환기시킬 수 있는 모든 要素⁷⁾라고 定義하였고, M. Rokeach(1973)는 價値를 한 특수한 행위의 양식이나 生活의 목적 상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반대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持續的인 信念⁸⁾이라고 하였다.

以上の 價値에 對한 定義을 綜合해 보면, 價値란 個人이나 集團이 內面化되어 있는 相對的 속성으로 더 낫다고 생각되는 情意的 判斷을 決定짓는 信念의 選擇傾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朴俊熙는 價値觀이란 '옳다' '좋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등과 같이 目標指向的인 意識을 지칭하는 概念⁹⁾이라고 했으며, 車京守는 價値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持續的으로 가지고 있는 心理的 反應의 傾向으로서, 事物이나 行動에 대하여 부여하는 重要性的 程度 또는 評價基準¹⁰⁾이라 하였고, 金泰吉은 價値觀은 行動의 傾向, 또는 行動을 일으키는 原動으로서의 心理的 要因, 즉 意識的일 수도 있는 行動의 동기를 가리킨다¹¹⁾라고 하였다.

鄭範模는 價値란 行動方向 選擇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대한 一般的 概念이라면서, 價値觀은 그 사람의 行動에 얼마나 重要的 役割을 하는가를 다음 몇 가지 事實에서 示唆해 주고 있다.¹²⁾

첫째, 價値觀은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크게 決定한다.

둘째, 價値觀의 如何는 우리의 知覺과 解釋을 크게 좌우한다.

셋째, 價値觀의 如何는 우리 人生 어디에서 그 滿足과 意識을 얻느냐에 直結되고 있다.

넷째, 價値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評價의 基準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朴容憲은 價値觀은 다음과 같은 共通點이 있다고 主張한다.¹³⁾

첫째, 價値觀은 文化的 產物이지만 이는 個人의 學習을 통해서 內面化되어 동기가 作用하고 있으며,

둘째, 個人의 心理的 體系에 內面化되어 동기로써 作用하고 있으나,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具體的인 概念은 아니며, 極히 抽象的인 概念이다.

셋째, 價値觀은 個人의 行動을 拘束하는 評價的 基準, 理念내지는 信念으로서, 이 理念

7) R. Linton, *the cultured Background of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and Kogan Paul, 1947). pp. 20.

8) 鄭世九, 「價値·態度教育의 理論과 實際」(서울: 배영사, 1982), pp. 11.

9) 朴俊熙, 「韓國人の 教育觀」(서울: 실학사, 1975), pp. 25.

10) 車京守, 「産業社會教育問題」教育現場全書, 第二卷, (서울: 배영사, 1977), pp. 110.

11) 金泰吉, 「人間回復의 序章」(서울: 三星文化財團, 1973), p. 12.

12) 鄭範模, 전제서, p. 27.

13) 朴容憲, 「態도와 價値觀의 研究」(서울: 배영사, 1970), p. 125.

내지 信念은 個人的 心理學的 組織을 체계화하여 行動統一을 이룩하고 安全을 가져오게 하여 社會的 統合과 安全을 위해서 極히 必要한 것이라 하였다.

F. R. Kluckhohn 과 F. L. Strodtbeck 은 價値觀은 부단히 계속되는 人間行動의 흐름에 대하여 秩序와 方向을 주며, 共通的인 人間問題를 해결하는 데 의견을 주는 것으로서, 分析的으로 區別할 수 있는 評價過程의 세 要素 — 認知的(Cognitive), 情意的(Affective), 方向的(Directive) — 의 完全한 相互作用에 의하여 생기는 複合的인면서도 同時에 一定한 유형을 가진 原則이며, 이러한 評價過程은 共通된 人間問題의 解決에 관련되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人間行爲와 思想에 對해 秩序와 方向을 주는 것¹⁴⁾이라고 하였다.

以上の 價値觀의 定義를 共通的으로 綜合해 보면 價値觀이란 사람들이 當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事物이나 行動에 대해 어느 정도 持續的으로 가지고 있는 心理的 傾向으로서 人間問題에 대해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에 관한 一般的인 생각, 혹은 그것에 부여하는 重要性的 程度와 評價基準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價値와 價値觀은 서로 同一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價値觀은 價値가 적용되는 행동 장면의 내용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는 경우, 또는 價値體系로 구분하고 있다 하겠다.

2. 價値觀의 形成과 變化

價値觀의 形成과 變化에 對한 것은 價値觀 研究에서는 매우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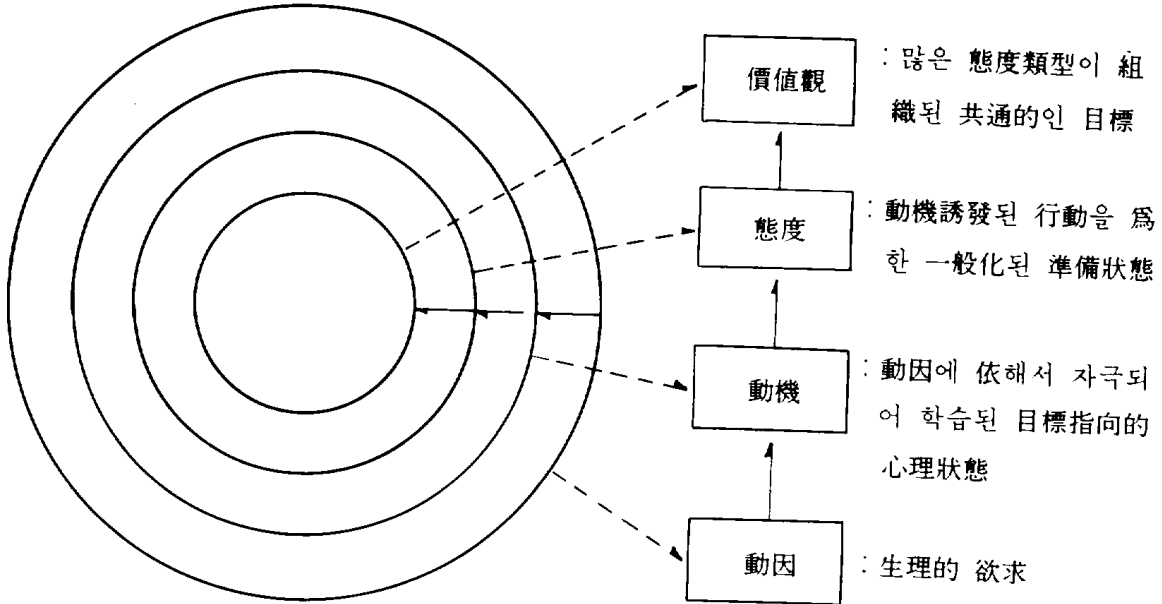
鄭元植은 價値觀의 形成을 個人이나 集團, 즉 유기체에 중점을 두고 첫째, 家庭環境의 영향, 둘째, 同友集團의 영향, 셋째, 대중 매체의 영향을 強調하면서 價値觀은 一次的으로 家庭環境의 영향에 의하여 形成되며, 이는 父母의 模型으로서의 役割과 父母에 의하여 行事되는 報償과 罰의 作用, 즉 同一視 作用과 強化體制에 의하여 形成되고 變化된다는 것이며, 二次的으로는 同友集團과 學校, 大衆媒體의 영향이 크게 作用한다¹⁵⁾고 하였으며, T. M. Newcomb(1965)은 價値觀을 “特定 事物에 對한 態度등을 綜合할 수 있는 共通點”이라 定義하고, 態度理論中の 均衡理論에 속하는 作業의 하나로서 態도와 價値觀, 그리고 動機, 動因들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으며, 行動性向을 決定하는 始發點이 生理的 欲求作用인 動因으로서, 바로 低 단계인 動機에 刺戟을 주어 어떤 方向性을 갖는 行動性向인 動機를 形成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態度를 形成하며 여러 態度들의 共通的인

14) F. R. Kluckhohn and Fred L. Strodtbeck, *Variations Value Orientation*, (New York : Row Peterson and Co. 1961), p. 41.

15) 鄭元植, 「教育環境論」(서울 : 교육출판사, 1976), pp. 53~57.

目標로서 價値觀이 形成된다는 것이다.¹⁶⁾

(表 1) 價値・態度・動機・動因間의 關係



그러나 黃應淵에 의하면 위와 같이 一方通行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相互作用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¹⁷⁾ 즉, 動機는 動因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態度나 價値觀의 영향을 받는 還流(feed back)의 作用이 있다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價値觀은 欲求, 動因, 知覺 등의 意志的, 情意的, 認知的 側面을 바탕으로 한 動機, 信念, 態度 등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形成하지만, 一次的으로 父母에 대한 同一視 作用과 父母에 의하여 행사되는 補賞體制에 의하여, 二次的으로는 同友集團, 學校, 大衆媒體 등의 文化的 要素에 영향을 크게 받아 形成되고 變化한다고 볼 수 있다.

3. 價値觀의 分類

價値觀의 分類는 研究者의 관심이나 研究對象, 또는 研究方法에 따라 다양하게 分類된다.

우리의 經驗上 積極的 價値는 自己가 追求하는 것을, 消極的 價値는 自己가 追求하지

16) T. M. Newcomb, R. H. Turner & P. E. Converse,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and Winston, 1965), pp. 44~45.

17) 黃應淵, 「大學生의 價値觀 및 관련된 變因에 관한 연구」(서울: 益文社, 1975), p. 6.

않는 것이라고 보는 學者 중 에베레트(W. G. Everett)는 價値觀을 ① 經濟的 價値, ② 身體的 價値, ③ 娛樂的 價値, ④ 社交的 價値, ⑤ 品性的 價値, ⑥ 審美的 價値, ⑦ 知的 價値, ⑧ 宗教的 價値로 分類하였다.¹⁸⁾ 또한 G. W. Allport 와 P. E. Vernon¹⁹⁾은 독일의 教育 哲學者 E. Spranger 가 提示한 6個의 價値領域, 즉 理論的, 經濟的, 審美的, 社會的, 政治的, 宗教的 價値를 相對的으로 測定하여 6가지의 基本的 價値觀, 즉 ① 理論的 價値觀(知的인 手段에 의하여 眞理를 求하려는 관심), ② 經濟的 價値觀(有用하고 실제적인 事物에 대한 관심), ③ 審美的 價値觀(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관심), ④ 社會的 價値觀(다른 사람을 도와 주려고 하는 態度), ⑤ 政治的 價値觀(다른 사람을 支配하려는 態度), ⑥ 宗教的 價値觀(宗教的 經驗에 대한 關心)으로 分類하였다. 그리고, 브로디(H. S. Broudy)는 價値領域으로서,²⁰⁾ ① 經濟的 價値, ② 健康的, 身體的, 娛樂的 價値, ③ 社會的 價値, ④ 道德的 價値, ⑤ 審美的 價値, ⑥ 知的 價値, ⑦ 宗教的 價値 등을 들고 있다.

메링거(H. D. Mehlinger)는 價値를 ① 물질적, 유희적 價値, ② 경제적 價値, ③ 도덕적 價値, ④ 사회적 價値, ⑤ 정치적 價値, ⑥ 미적 價値, ⑦ 종교적 價値, ⑧ 지적 價値, ⑨ 직업적 價値, ⑩ 정서적 價値로 分類하였고,²¹⁾ 李奎浩는 價値觀을 크게 3가지로 分類하여 말하고 있는데,²²⁾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倫理的 價値 — 道德의 領域에 속함.
- 2) 審美的 價値 — 藝術의 領域에 속함.
- 3) 効用的 價値 — 經濟의 領域에 속함.

위의 3가지로 分類된 것을 간략히 說明하면, 첫째, 倫理的 價値는 칸트에 의하면 실천적인 法則性을 따르는 意志의 決定을 뜻한다. 또한, 倫理的 價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目標로 한 意志의 決定이라고 생각한 公理主義的 倫理學者도 있었다. 둘째, 審美的 價値는 샤프테스부리(Shaftesbury) 이래 多樣性의 統一, 또는 調和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셋째, 効用的 價値는 一定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 機能에 있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18) 金斗憲, 「價値觀」 哲學大事典, (서울: 학원사, 1964), p. 5.

19) G. W. Allport, P. E. Vernon, and G. Lindzey, *Study of Values*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pp. 16~17; 朴明雨, “女高生の 價値觀에 관한 調査研究,” (인하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pp. 13.

20) H. S. Broudy, *Building of Philosophy of Education*, 1954, pp. 273~300.

21) H. D. Mehlinger · 鄭世九外共著, 「社會科 教育 핸드북」 (서울: 교육과학사, 1984), pp. 189~190.

22) 李奎浩, 「價値觀의 變化와 教育의 과제」, 「政經研究」, 통권149호, 1977. 7, p. 112.

以上の 價値觀의 分類를 근거로 中學生의 教育課程內의 價値觀 教育은 特히 倫理(道德)에 關한 價値, 審美的 價値, 知識에 關한 價値 및 人間 關係에 關한 價値를 더욱 強調하여 이를 실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4. 先行研究 및 概念模型의 設定

靑少年들을 對象으로 한 價値觀내지 態度 등에 關한 研究는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學界의 教育一線의 個人 또는 研究機關들에 의하여 적지 않은 調査가 실시되어 그 結果가 보고되었다. 이들 중 代表的인 先行研究를 概觀해보면, 朴榮吉은 '高等學生의 價値觀 및 生活意識에 關한 研究'에서 價値測定 領域을 社會觀, 倫理觀, 人生觀, 價値序列, 生活意識으로 分類하여 價値觀을 分析²³⁾하고 있으며, 洪承稷은 韓國의 傳統社會가 어느 程度의 變遷을 하였는가를 把握하고, 韓國의 現代化 過程을 理解하려는 目的으로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를 ① 傳統的 價値觀, ② 人生, 世界觀, ③ 結婚 相對者 選擇問題, ④ 政治的 態度, ⑤ 對 人格 價値觀, ⑥ 幸福, 不安觀, ⑦ 對 戰爭觀, ⑧ 對 外國觀, ⑨ 生活目標 等으로 提示하였다.²⁴⁾

또한 張大榮의 '國民學校 學生의 價値觀 調査研究'²⁵⁾와 朴明雨의 '女高生의 價値觀에 關한 調査研究'²⁶⁾에서 價値觀 領域을 個人生活, 家族生活, 國家生活, 社會生活로 分類하여 分析하고 있으며, 姜學錫은 價値觀 確立을 위한 資料를 教育現場에 提示하기 위한 目的으로 高等學校 學生들의 價値觀을 研究하였다.²⁷⁾ 그 調査分析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傳統的 價値觀
- 2) 人格, 世界觀
- 3) 結婚 相對者 選擇問題
- 4) 政治的 態度
- 5) 對 人格 價値觀
- 6) 幸福, 不安觀念
- 7) 對 戰爭觀念
- 8) 對 外國觀念
- 9) 生活目標 等이다.

23) 朴榮吉, "高等學生의 價値觀 및 生活意識에 關한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24) 洪承稷,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pp. 29.

25) 張大榮, "國民學校學生의 價値觀 調査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26) 朴明雨, 전제서, pp. 15~16.

27) 姜學碩, "高等學校 學生들의 價値觀 研究," 教育研究(1970.10), p.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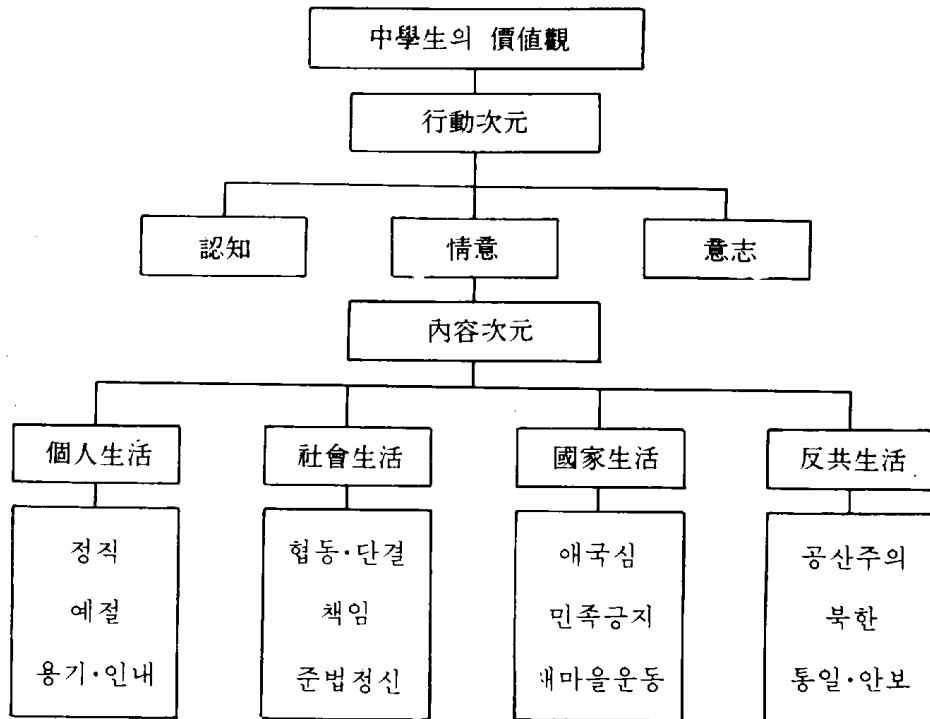
이 외에도 價値觀에 관한 研究들이 많이 있다.²⁸⁾

그 중에서 李承熙는 價値觀 領域을 教育에 對한 價値觀, 家族에 對한 價値觀, 社會에 對한 價値觀, 政治에 對한 價値觀으로 分類하여 調査하였으며, 申憲植은 高校生들이 自然이나 人間, 父母, 祖上, 物質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價値觀은 傳統的 價値觀과 近代的 價値觀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반항과 극단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와 편법주의로 向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李善宰는 非行 靑少年의 實態調査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現代社會의 靑少年問題, 靑少年 非行의 實態와 指導問題, 國家의 發展과 靑少年의 價値觀 指導에 關한 것이다.

이상에서 概觀한 先行研究들을 分析하여 濟州道 中學生들의 價値觀의 概念模型을 다음 (表 2)과 같이, 行動次元에서는 態度構成理論²⁹⁾에 의해서 認知, 情意, 意志로 分類하였으며, 內容次元에서는 우선 크게 個人生活, 社會生活, 國家生活, 反共生活 領域으로 分類하였고, 이들 領域의 關聯要素들을 다시 中學校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德目要素들을 추출³⁰⁾하여 分類하였다.

-
- 28) 金誠一·洪大植, “韓國學生의 國家觀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教育開發院, 1976. 12).
李承熙, “人文·實業系高等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比較研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7).
洪承稷, 「知識人의 價値觀 研究」(서울: 三英社, 1973).
安鎮植, “靑少年의 家庭環境과 價値觀의 관계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0).
申憲植, “高等學校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0).
李善宰, “靑少年 善導를 위한 價値觀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黃吉雄, “韓國靑少年의 家庭 價値觀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4).
- 29) 朴容憲, 「社會的 行動과 學習」, 教育出版社, 1976, pp. 298~312.
- 30) 金恒元, “濟州道 住民들의 反共意識 調査研究,” 제주대학 논문집(사회과학편) 제13집, 1981, pp. 151~154.
鄭世九, 전계서, pp. 147~149.
鄭世九外共著, 전계서, pp.
秦君善, “현행중학교 도덕교과서의 내용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表 2) 價値觀의 概念模型



III. 研究方法

1. 測定道具

本 研究에서는 앞에서 提示한 概念模型에 맞추어서 測定道具를 제작하였다. 先行研究에서 사용되었던 質問紙 問項 중에서 價値觀에 해당하는 問項을 일부 選擇修整하고, 그 외는 內容次元과 行動次元別로 만들어서 問項 하나하나에 대한 檢討를 거친 후에, 제주시 J중학교 한 학급을 對象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大답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36個 問項을 (表 3)에 提示한 바와 같이 확정하였다.

(表 3) 調査道具의 構成內容 및 問項數

行動次元 內容次元	認知	情意	意志	計
個人生活	3	3	3	9
社會生活	3	3	3	9
國家生活	3	3	3	9
反共生活	3	3	3	9
計	12	12	12	36

이러한 價値觀에 관련된 問項들의 測定은 各 問項마다 5 단계의 反應答紙가 주어지는 Likert 式이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그렇다'에 5 점, '그런 것 같다'에 4 점, '잘 모르겠다'에 3 점, '아닌 것 같다'에 2 점, '확실히 아니다'에는 1 점으로 配點하여 反應結果를 點數로 환산하였다.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는 意識水準이 높은 것을 뜻하고, '아닌 것 같다'와 '확실히 아니다'는 낮은 것을 뜻하며, '잘 모르겠다'는 중간이다.

2. 標 集

本 研究를 위한 研究對象은 濟州道를 濟州市, 西歸浦市, 北濟州郡과 南濟州郡으로 區分하여 各 地域別로 男·女 1個校씩 선정하여 學年마다 60名씩 1,44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標集은 1986年 3月 20日부터 3月 27日 사이에 실시 회수하였다.

質問紙의 實施結果는 (表 4)에 提示된 바와 같으며, 回收된 數는 1,315名이었다. 標集된 1,315名 중 질문지의 全問項에 反應을 하지 않은 것과, 한 問項에 둘 이상 선택한 것

을 제외하고(284名) 분석대상은 1,031名이었으며, 실제 분석 대상으로 취급된 標集의 背景變因別數는 (表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表 4) 地域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數와 回收現況

地域	區分 性別	실시대상자수		회 수		회수율(%)
		남	여	남	여	
제주시지역중학교		180	180	155	160	87.50
서귀포시지역중학교		180	180	160	170	91.67
북제주군지역중학교		180	180	165	175	94.44
남제주군지역중학교		180	180	160	170	91.67
합	計	720	720	640	675	91.32%

(表 5) 背景變因別 標集人員數

背景變因	變因區分	計
性別	男(472) 女(559)	1,031
學年別	1학년(327) 2학년(339) 3학년(365)	1,031
地域別	제주시지역중학교 266 서귀포시지역중학교 263 북제주군지역중학교 286 남제주군지역중학교 216	1,031

3. 資料處理

蒐集된 資料의 分析을 위해서 제주삼성컴퓨터학원에서 전산처리되었으며, 이 研究에 서 사용된 統計値는 平均(M), 百分比(%), T, F 검증 등이었다.

IV. 結果 및 論議

1. 領域別 分析

가. 個人生活의 內容 · 行動別特性

(1) 正 直

正直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정직이 社會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며, 情意水準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느낌이고, 意志水準에서는 친구에 대한 바른자세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위에서 提示된 순서에 따라 分析하려고 한다.

다음 (表 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정직해야만이 個人이나 社會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87.39%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9.22%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정직이 社會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表 6) 個人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內容次元	意識反應 行動次元 問項	N	M	S.D	반응구분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 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정직	認知 1	1031	4.395	0.979	649 (62.95)	252 (24.44)	35 (3.39)	78 (7.57)	17 (1.65)	100
	情意 2	1031	4.378	0.823	560 (54.32)	349 (33.85)	84 (8.15)	28 (3.49)	10 (0.97)	
	意志 3	1031	3.429	1.085	198 (19.20)	296 (28.71)	320 (31.04)	184 (17.85)	33 (3.20)	
예절	認知 4	1031	4.600	0.735	731 (70.90)	225 (21.82)	44 (4.27)	25 (2.42)	6 (0.58)	
	情意 5	1031	4.193	2.973	500 (48.50)	320 (31.04)	138 (13.39)	56 (5.43)	17 (1.65)	
	意志 6	1031	3.749	1.233	371 (35.98)	309 (29.97)	109 (10.57)	205 (19.88)	37 (3.59)	
용기 인내	認知 7	1031	4.443	0.851	640 (62.08)	262 (25.41)	84 (8.15)	36 (3.49)	9 (0.87)	
	情意 8	1031	4.373	0.948	630 (61.11)	239 (23.18)	94 (9.12)	53 (5.14)	15 (1.45)	
	意志 9	1031	3.544	1.106	245 (23.76)	317 (30.75)	235 (22.79)	222 (21.53)	12 (1.16)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情意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친구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88.17%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4.46%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친구간에는 정직에 대하여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意志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남에게 속이지 않는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47.91%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21.05%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높은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正直’과 관련하여 設定된 3個 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정직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반응율 87.39%), 거짓말에 대한 느낌(88.17%), 친구에 대한 바른자세(47.9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認知水準과 情意水準에서의 反應은 비교적 비슷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意志水準에서의 반응은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2) 예 절

예절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예절의 필요성이고, 情意水準에서는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이며, 意志水準에서는 웃어른에 대한 인사성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

表 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명량한 社會가 되기 위해서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92.72%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3.00%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예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높은 認識性向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情意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79.54%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7.08%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意志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웃어른과 만났을 때는 인사하고 지난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65.95%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23.47%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예절’과 관련하여 設定된 3個 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예절의 필요성(긍정적 반응율 92.72%),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긍정적 반응율 79.54%), 웃어른에 대한 인사성(69.9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認知水準에서는 매우 높은 긍정적 반응율을 보인 반면 意志水準에서 ‘잘 모르겠다’(10.58%)와 23.47%가 부정적 반응율을 보인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3) 용기·인내

용기·인내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성공을 위한 용기의 필요성, 情意水準에서는 고난 극복에 대한 표현이며, 意志水準에서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행동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

(表 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87.49%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4.36%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공을 위한 용기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정의 수준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84.29%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6.59%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의지 수준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실천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4.51%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22.69%가 ‘아니다’라는 높은 부정적인 반응 경향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용기·인내’와 관련하여 設定된 3個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성공을 위한 용기의 필요성(긍정적 반응율 87.49%), 고난 극복에 대한 표현(84.29%),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행동(긍정적 반응율 54.51%)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認知水準과 情意水準에서의 반응은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인식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의지 수준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22.69%에 해당되는 많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나. 社會生活의 內容·行動別 特性

(1) 협동·단결

협동·단결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社會의 重要性이고, 情意水準에서는 봉사에 대한 느낌이며, 意志水準에서는 社會에 協力하는 태도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위에서 提示된 순서에 따라 分析하려고 한다. 다음 (表 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나는 자신의 個人的인 일보다 여러 사람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64.30%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14.45%가 ‘아니다’라는 否定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社會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性向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情意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남을 도우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86.42%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4.65%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봉사에 대한 느낌은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意志水準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6.06%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18.81%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협동·단결’과 관련하여 設定된 3個問項에 대한 전체 반응 결과를 要約해 보면, 社會의 重要性(긍정적 반응을 64.30%), 봉사에 대한 느낌(긍정적 반응을 86.42%), 社會에 協力하는 태도(긍정적 반응을 56.06%)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봉사에 대한 느낌(86.42%)은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社會의 중요성(부정적 반응을 14.45%), 社會에 협력하는 태도(잘 모르겠다. 25.13%, 부정적 반응을 18.81%)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유의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表 7) 社會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內容次元	意識反應		N	M	S.D	반응구분(%)					計
	行動次元	問項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협동 단결	認知	10	1031	3.834	1.108	368 (35.69)	295 (28.61)	219 (21.24)	127 (12.32)	22(2.13)	100
	情意	11	1031	4.424	0.882	638 (61.88)	253 (24.54)	92 (8.92)	35 (3.39)	13(1.26)	
	意志	12	1031	3.556	1.041	205 (19.88)	373 (36.18)	259 (25.12)	178 (17.26)	16(1.55)	
책임	認知	13	1031	4.689	0.644	794 (77.01)	171 (16.59)	49 (4.75)	16 (1.55)	1(0.10)	
	情意	14	1031	4.252	0.882	501 (48.59)	344 (33.37)	139 (13.48)	39 (3.78)	8(0.78)	
	意志	15	1031	3.683	1.084	278 (26.96)	351 (34.04)	212 (20.56)	177 (17.17)	13(1.26)	
준법 정신	認知	16	1031	4.725	0.644	825 (80.02)	157 (15.23)	24 (2.33)	21 (2.04)	4(0.39)	
	情意	17	1031	4.399	0.850	599 (58.10)	294 (28.52)	99 (9.60)	28 (2.72)	11(1.07)	
	意志	18	1031	3.369	1.067	152 (14.74)	366 (35.50)	248 (24.05)	240 (23.28)	25(2.42)	

(2) 책 입

責任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責任의 重要性, 情意水準에서는 責

任意識에 대한 感情이며, 意志水準에서는 책임 완수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자기가 맡은 일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93.60%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1.65%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책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情意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81.96%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4.56%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意志水準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자기가 맡은 일을 꼭 실천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61.00%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18.43%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責任’과 관련하여 設定된 3 個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긍정적 반응율 93.60%), 책임 의식에 대한 감정(긍정적 반응율 81.96%), 책임완수(긍정적 반응율 61.00%)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의지수준에서 20.57%가 ‘잘 모르겠다’, 18.4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의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3) 준법 정신

준법정신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 個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 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질서의 필요성, 情意水準에서는 공중 도덕에 대한 입장, 意志水準에서는 교통 질서에 임하는 자세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반응 결과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社會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95.25%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2.43%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情意水準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휴지나 오물을 아무 곳이나 버리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86.62%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2.79%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意志水準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0.24%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25.70%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준법 정신’과 관련하여 設定된 3 個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질서의 필요성(긍정적 반응율 95.25%) 공중 도덕에 대한 입장(긍정적 반응율 86.62%), 교통 질서에 임하는 자세(긍정적 반응율 50.24%)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중도덕에 대한 입장은 아주 높은 긍정적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행동면 즉, 교통 질서에 임하는 자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25.70%)을 보이는 학생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다. 國家生活의 內容・行動別特性

(1) 애국심

애국심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국산품 애용의 중요성, 情意水準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 意志水準에서는 국가애에 대한 마음가짐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반응 결과를 앞에서 提示된 順序에 따라 分析해 보려고 한다.

다음 (表 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91.46%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3.59%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情意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表 8) 國家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內容次元	意識反應		N	M	S.D	반응구분(%)					計
	行動次元	問項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 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애국심	認知	19	1031	4.619	0.769	770 (74.68)	173 (16.78)	51 (4.95)	30 (2.91)	7 (0.68)	100
	情意	20	1031	4.474	0.917	711 (68.96)	166 (16.10)	101 (9.80)	38 (3.69)	15 (1.45)	
	意志	21	1031	3.928	1.071	442 (42.87)	171 (16.59)	337 (32.69)	64 (6.21)	17 (1.65)	
민족 공지	認知	22	1031	4.663	0.694	778 (75.46)	193 (18.72)	31 (3.01)	24 (2.33)	5 (0.48)	
	情意	23	1031	4.189	0.965	507 (49.18)	287 (27.84)	176 (17.07)	47 (4.56)	14 (1.36)	
	意志	24	1031	4.258	0.951	565 (54.80)	226 (21.92)	191 (18.53)	39 (3.78)	10 (0.97)	
새마을	認知	25	1031	3.810	0.927	263 (25.51)	403 (39.09)	278 (26.96)	80 (7.76)	7 (0.68)	
	情意	26	1031	4.531	0.743	674 (65.37)	253 (24.54)	87 (8.44)	11 (1.07)	6 (0.58)	
운동	意志	27	1031	3.840	0.998	322 (31.23)	319 (30.94)	318 (30.84)	47 (4.56)	25 (2.42)	

보면, “나는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85.06%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反應을, 5.14%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고, 意志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우리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감히 싸우겠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59.46%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反應을, 7.86%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애국심’과 관련하여 設定된 3個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국산품 애용의 중요성(91.46%),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85.06%),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가짐(59.46%)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애국심에 대한 認識과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높은 긍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애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긍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2) 민족금지

민족금지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민족문화의 우수성, 情意水準에서는 민족문화에 대한 情緒, 意志水準에서는 민족문화에 대한 금지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 結果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表 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 結果를 보면,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文化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94.18%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反應을, 2.81%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어, 민족문화의 우수성에 대하여 매우 높은 긍정적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情意水準에서의 反應 結果를 보면, “우리 민족은 타민족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77.02%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反應을, 5.92%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意志水準에서의 反應 結果를 보면, “기회가 있다면 외국인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겠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76.72%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反應을, 4.75%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민족금지’와 관련하여 設定된 3個 問項에 대한 反應 結果를 要約해 보면, 민족문화의 우수성(94.18%) 민족문화에 대한 정서(77.02%), 민족문화에 대한 금지(76.72%)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족금지’에 대한 反應結果는 모두가 비교적 긍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情意水準과 意志水準에서 17.07%이상이 확고한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하겠다.

(3)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 情意水準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긍지, 意志水準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반응 결과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지수준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64.60%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8.44%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의수준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새마을 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89.91%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1.65%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매우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意志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향토사회에 봉사하고 새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62.17%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6.98%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새마을 운동’과 관련하여 設定된 3個 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율 64.60%),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긍지(긍정적 반응율 89.91%), 새마을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긍정적 반응율 62.17%)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에 못지않게 높다 하겠으나, 認知水準과 情意水準에서 26.96%이상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식이 부족함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라. 反共生活의 內容·行動別特性

(1) 共 産 主 義

共産主義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共産主義社會의 實現可能性이고, 情意水準에서는 自由없는 共産國家에 대한 동정이며, 意志水準에서는 共産主義 戰略에 대한 경계심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위에서 提示된 순서에 따라 分析하려고 한다.

다음 (表 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理想的인 共産社會의 實現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문항에 대하여(10.38%)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71.97%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情意水準에서의 반

응결과를 보면, “自由없는 共産國家를 보면 동정이 간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63.73%가 ‘그렇다’라는 반응을 20.88%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공산국가에 대한 感情的 反應은 동정하는 性向으로 기우는 정도가 높다 하겠다. 意志水準에서의 反應結果를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戰略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56.54%가 ‘그렇다’라는 肯定的 反應을, 15.42%가 ‘아니다’라는 否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데, 意志水準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以上の ‘共産主義’와 관련하여 設定된 3個 問項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 가능성(부정적 반응율 71.97%), 自由없는 공산국가에 대한 정서(동정하는 반응율 63.73%), 공산주의 戰略에 대한 警戒心(긍정적 반응율 56.54%)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산주의에 대한 인지수준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의수준에서는 너무 동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지수준에서는 43.46%가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否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하고 시급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表 9) 反共生活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內容 次元	意識反應		N	M	S.D	반응구분(%)					計
	行動 次元	問項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 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공산 주의	認知	28	1031	1.920	1.158	50 (4.85)	57 (5.53)	182 (17.65)	214 (10.76)	528 (51.21)	100
	情意	29	1031	3.694	1.348	386 (37.44)	271 (26.29)	159 (15.42)	102 (9.89)	113 (10.96)	
	意志	30	1031	3.657	1.177	315 (30.55)	268 (25.99)	289 (28.03)	97 (9.41)	62 (6.01)	
북한	認知	31	1031	3.832	1.289	450 (43.65)	204 (19.79)	220 (21.34)	68 (6.60)	89 (8.63)	
	情意	32	1031	4.255	1.103	595 (57.71)	250 (24.25)	91 (8.83)	44 (4.27)	51 (4.95)	
	意志	33	1031	1.883	1.305	88 (8.54)	53 (5.14)	138 (13.39)	123 (11.93)	629 (61.01)	
통일 안보	認知	34	1031	4.785	0.632	887 (86.03)	97 (9.41)	26 (2.52)	11 (1.07)	10 (0.97)	
	情意	35	1031	4.419	0.827	609 (59.07)	287 (27.84)	101 (9.80)	26 (2.52)	8 (0.78)	
	意志	36	1031	3.349	1.153	227 (22.02)	179 (17.36)	420 (40.74)	137 (13.29)	68 (6.60)	

(2) 北 韓

북한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北韓의 好戰性이고, 情意水準에서는 북한 住民의 생활상이며, 意志水準에서는 北韓에서의 生存與否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 結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表 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認知水準에서의 反應 結果를 보면, “북한은 世界에서 가장 好戰的인 集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問項에 대하여 63.44%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15.23%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북한에 대한 호전성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인식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情意水準에서의 反應 結果를 보면, “북한의 비참한 주민 생활상을 보면 동정이 간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81.96%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9.22%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비참한 주민 생활상에 대하여 동정하는 性向으로 기우는 정도가 매우 높다 하겠다. 意志水準에서의 反應 結果를 보면,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북한 공산치하에서 살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13.68%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72.94%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북한 공산치하에서 살고 싶다”라는 問項에서 ‘확실히 그렇다’라는 反應이 8.54%가 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以上の ‘北韓’과 관련하여 設定된 3個 問項들에 대한 反應 結果를 要約해 보면, 북한에 대한 호전성에 대한 인식(63.44%), 북한의 비참한 주민생활상에 대한 정서(동정하는 反應을 81.96%), 북한에서의 생존여부(부정적 反應을 72.94%)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에 대한 호전성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동포애에 대한 동정이 너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8.54%가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북한 공산치하에서 살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統一·安保

統一·安保에 대한 濟州道 中學生의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3個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分類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우리의 平和 統一政策, 정의수준에서는 統一問題 解決方法, 의지수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저지 능력감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앞에서와 같이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지수준에서의 反應 結果를 보면, “우리의 統一政策은 平和統一이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95.44%가 긍정적 反應을, 2.04%가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확실히 그렇다’라는 反應이 86.03%나 되고 있어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

통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하겠다. 정의수준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南北 統一問題는 이산가족찾기, 서신왕래 등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方法이 좋은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86.91%가 긍정적 반응을, 1.1%가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의 통일문제 해결방식을 지지하는 性向이 매우 높게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의지수준에서의 반응 결과를 보면, “북한이 남침한다면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39.38%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19.89%가 ‘아니다’라는 반응과 40.74%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以上の ‘統一·安保’와 관련하여 設定된 3個 問項에 대한 반응 결과를 要約해 보면,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95.44%), 우리의 통일 문제 해결방법 지지(86.91%)에서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저지 능력감(39.38%)에서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부정적 반응 경향이 60.62%가 되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2. 背景變因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

가. 性 別

濟州道 中學生들의 性別에 따라 價値觀에 差異가 나타나는지를 다음 (表1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내용차원과 대한 행동차원, 즉 認知, 情意, 意志 順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個人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P < .05$), 남자($M = 13.56$)가 女子($M = 13.34$)보다 더 높은 긍정적 반응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情意水準에서도 有意한 差가 나타나고 있으며($P < .01$), 女子($M = 13.14$)가 男子($M = 12.71$)보다 비교적 더 높은 긍정적인 感情的 性向을 보이고 있다. 意志水準에서는 남자($M = 10.84$)와 女子($M = 10.62$)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社會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와 情意水準에서는 男子와 女子사이에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意志水準에서는 유의한 差가 나타나고 있으며($P < .01$), 男子($M = 10.80$)가 女子($M = 10.45$)보다 더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國家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P < .05$), 男子($M = 13.20$)가 女子($M = 13.00$)보다 더 높은 긍정적 반응 경향을 보이고 있다. 情意水準에서는 有意한 差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意志水準에서는 有意한 차가 나타나고 있으며($P < .01$), 男子($M = 12.31$)가 女子($M = 11.79$)보다 비교적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反共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와 情意水準에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意志水準에서는 男子(M = 9.39)가 女子(M = 8.46)보다 비교적 긍정적이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表10)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

내용차원	배경원인		남(472)		女(559)		
	행동차원	문항	M	S.D	M	S.D	T
個人生活	認 知	1 4 7	13.56	1.56	13.34	1.67	2.14 ^a
	情 意	2 5 8	12.71	1.90	13.14	1.62	3.91 ^b
	意 志	3 6 9	10.84	2.35	10.62	2.40	1.51
社會生活	認 知	10 13 16	13.28	1.62	13.22	1.57	0.68
	情 意	11 14 17	13.08	1.76	13.07	1.89	0.09
	意 志	12 15 18	10.80	2.14	10.45	2.15	2.63 ^b
國家生活	認 知	19 22 25	13.20	1.57	13.00	1.57	1.97 ^a
	情 意	20 23 26	13.27	1.80	13.13	1.92	1.26
	意 志	21 24 27	12.31	2.09	11.79	2.09	4.03 ^b
反共生活	認 知	28 31 34	10.61	1.85	10.47	1.79	1.21
	情 意	29 32 35	12.39	2.35	12.35	2.29	0.28
	意 志	30 33 36	9.39	2.31	8.46	2.07	6.78 ^b

^aP < .05, ^bP < .01

性別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에 대한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個人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水準에서는 男子가 女子보다 더 높은 긍정적 반응을, 情意水準에서는 女子가 男子보다 더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社會生活, 國家生活, 그리고 反共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意志水準에서는 有意한 差를 보이면서, 男子가 女子보다 매우 높은 肯定的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나. 學年別

濟州道 中學生들의 學年에 따라 價値觀에 差異가 나타나는지를 다음 (表1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內容次元과 行動次元, 즉 認知·情意·意志 順으로 分析하려고 한다.

(表11) 學年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

내용차원	배경원인		1 학년 (327)		2 학년 (339)		3 학년 (365)		F
	해동차원	문항	M	S.D	M	S.D	M	S.D	
個人生活	認知	1 4 7	13.56	1.59	13.57	1.48	13.21	1.75	0.08
	情意	2 5 8	12.81	1.73	12.93	1.84	13.08	1.71	0.03
	意志	3 6 9	10.95	2.39	10.87	2.29	10.37	2.41	0.28
社會生活	認知	10 13 16	13.18	1.82	13.31	1.56	13.24	1.60	0.01
	情意	11 14 17	13.02	1.83	13.01	1.92	13.18	1.75	0.01
	意志	12 15 18	10.09	2.13	10.62	2.15	10.53	2.17	0.02
國家生活	認知	19 22 25	13.12	1.50	13.16	1.62	13.01	1.59	0.01
	情意	20 23 26	13.24	1.66	13.28	1.91	13.08	1.99	0.02
	意志	21 24 27	11.81	2.00	12.14	2.15	12.11	2.14	0.08
反共生活	認知	28 31 34	10.59	1.80	10.54	1.89	10.48	1.77	0.01
	情意	29 32 35	12.16	2.26	12.46	2.44	12.47	2.23	0.07
	意志	30 33 36	8.61	2.26	8.91	2.26	9.12	2.14	0.27

個人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水準에서는 1 학년(M = 13.56), 2 학년(M = 13.57), 그리고 3 학년(M = 13.21) 사이에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의지수준에서 1 學年 學生들이 3 學年 學生들보다 비교적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社會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學年別로 거의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認

知水準에서는 2學年(M = 13.31)이 情意水準에서는 3學年(M = 13.18), 意志水準에서는 1학년(M = 10.69)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國家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社會生活에서와 마찬가지로 學年別로 거의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意志水準에서 1學年(M = 11.81)보다 2學年(M = 12.14), 3學年(M = 12.11)이 국가생활에 대한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反共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水準에서는 저학년일수록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情意水準과 意志水準에서는 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一貫性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認知水準에서는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년별 사이에는 反共生活에 대한 價値觀의 差異가 없다 하겠다.

學年別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에 대한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개인생활에 대한 인식성향은 認知와 情意水準에서는 學年別사이에 그 차이가 근소한 것에 불과하나, 다만 意志水準에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비교적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社會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水準에서는 2學年(M = 13.31)이, 情意水準에서는 3學年(M = 13.18)이, 意志水準에서는 1學年(M = 10.69)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國家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意志水準에서 3學年(M = 12.11)이, 1學年(M = 11.81)보다 비교적 높은 認識性向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反共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意志水準에서 有意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1學年(M = 8.61)보다 3學年(M = 9.12)학생들이 反共生活에 대한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다. 地 域 別

濟州道 中學生들의 地域別에 따라 價値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다음 (表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내용 차원과 행동차원 즉, 認知·情意·意志 順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個人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情意·意志水準에서 有意한 差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認知水準에서는 남제주군 지역 학생(M = 13.60)이 긍정적 반응을 情意와 意志水準에서는 제주시 지역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 反應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社會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情意·意志水準에서 有意한 差가 보이고 있지 않으며, 認知와 意志水準에서는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情意水準에서 제주시 지역 학생(M = 13.2)이 서귀포시 지역 학생(M = 12.97)보다 비교적 높은 感情的性向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國家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情意·意志水準에서 모두가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

(表12) 地域別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

내용 차원	배경원인		제주시(266)		서귀포시(263)		북제주군(286)		남제주군(216)		F
	행동 차원	문항	S.D	M	S.D	M	S.D	M	S.D	M	
個人生活	認知	1 4 7	13.52	1.50	13.34	1.78	13.33	1.66	13.60	1.49	0.03
	情意	2 5 8	13.24	1.64	13.03	1.73	12.64	1.77	12.88	1.87	0.13
	意志	3 6 9	10.96	2.35	10.59	2.29	10.57	2.43	10.79	2.42	0.10
社會生活	認知	10 13 16	13.35	1.61	13.11	1.60	13.28	1.45	13.25	1.72	0.02
	情意	11 14 17	13.21	1.72	12.97	1.84	13.06	1.85	13.05	1.93	0.02
	意志	12 15 18	10.48	2.17	10.58	2.04	10.63	2.13	10.77	2.28	0.04
國家生活	認知	19 22 25	13.15	1.67	13.06	1.60	13.11	1.37	13.03	1.68	0.01
	情意	20 23 26	13.22	1.90	13.03	1.86	13.26	1.81	13.27	1.90	0.02
	意志	21 24 27	12.14	2.11	11.84	2.03	12.16	2.06	11.93	2.22	0.06
反共生活	認知	28 31 34	10.46	1.80	10.51	1.99	10.76	1.74	10.38	1.71	0.08
	情意	29 32 35	12.45	2.42	12.63	2.15	12.04	2.30	12.38	2.35	0.14
	意志	30 33 36	9.11	2.09	8.75	2.32	8.85	2.27	8.83	2.21	0.10

지 않다.

反共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情意·意志水準에서 有意한 差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意志水準에서는 제주시 지역 학생(M = 9.11)이 타지역 학생들 보다 비교적 높은 긍정적 意志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地域別에 따라 나타나는 價値觀의 差異에 대한 反應結果를 要約하면, 個人生活, 社會生活, 國家生活, 反共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情意·意志水準에서는 모두가 일관성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地域別사이에는 價値觀의 差異가 없다 하겠다.

V. 結論 : 要約 및 提言

1. 要 約

本 研究의 目的은 濟州道 中學生의 價値觀을 調査 分析함으로써 道德教育의 問題點을 찾아내어 道德教育의 方法을 개선하고 靑少年 問題의 解決 方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活用하려는 데 있다.

價値觀에 관한 既存研究들을 分析하여 中學生의 意識構造의 概念模型을 內容次元에서는 우선 크게 個人生活, 社會生活, 國家生活, 反共生活 領域으로 分類하고 이들 領域의 關聯 要素들을 다시 現行 中學校 教育課程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德目要素, 즉 個人生活에서는 正직, 예절, 용기, 社會生活에서는 협동·단결, 책임, 준법정신, 國家生活에서는 애국심, 민족공지, 새마을 운동, 反共生活에서는 공산주의, 북한, 통일·안보 次元으로 分類하였으며, 이 德目要素들을 態度構成理論을 토대로 認知, 情意, 意志등 세水準의 心理的 性向으로 分類하였다.

測定道具는 價値觀의 概念模型에 맞추어서 個人生活 領域 9 個 問項, 社會生活 領域 9 個 問項, 國家生活 領域 9 個 問項, 反共生活 領域 9 個 問項, 總 36 個 問項을 質問紙化 했다. 이들 問項의 測定은 各 문항마다 5 단계의 반응답지가 주어지는 Likert 式이다.

研究對象은 濟州道를 濟州市, 西歸浦市, 南濟州郡과 北濟州郡으로 區分하여 各 地域別로 男·女 1 個校씩 先定하여 學年마다 60 名씩 1,440 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標集方法은 道德科目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부탁한 후 실시하여 回收하는 方法을 택하였다.

質問紙를 實施하여 回收된 數는 1,315 名이었으며, 이 중에서 全 問項에 응답을 하지 않은 284 名을 제외하고, 실제로 分析의 對象으로 취급된 標集數는 1,031 名이었다. 蒐集된 資料는 전산처리를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치는 平均(M), 百分比(%), T 와 F 檢證을 통하여 分析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領域別 分析에서 個人生活面(정직, 예절, 용기)은 平均 76.44%(개인생활의 전체 平均치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1.3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6.44%의 긍정적 반응을 내용 차원 및 행동 차원으로 分類한 結果를 보면, 正직(인지 87.39%, 정의 88.17%, 의지 47.91%), 예절(인지 92.72%, 정의 79.54%, 의지 65.95%) 용기·인내(인지 87.49%, 정의 84.29%, 의지 54.51%)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認知와 情意水準에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意志水準에서는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社會生活面(협동·단결, 책임, 준법정신)의 전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학생은 75.05%이고, 10.39%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75.05%의 긍정적 반응을 내용 차원 및 행동 차원으로 분류된 결과를 보면, 협동·단결(인지 64.30%, 정의 86.42%, 의지 56.06%), 책임(인지 93.60%, 정의 81.96%, 의지 61.00%), 준법정신(인지 95.25%, 정의 86.62%, 의지 50.24%)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지와 정의수준에서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율을 보이고 있으나, 준법정신에서의 意志水準에서는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國家生活面(애국심, 민족금지, 새마을 운동)의 全體反應結果를 보면 77.84%가 긍정적 반응을, 5.24%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77.84%의 긍정적 반응을 내용 차원 및 행동 차원으로 분류된 결과를 보면, 애국심(인지 91.46%, 정의 85.06%, 의지 59.46%), 민족금지(인지 94.18%, 정의 77.02%, 의지 76.72%), 새마을 운동(인지 64.60%, 정의 89.91%, 의지 62.17%)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16.92%가 '잘 모르겠다'와 5.24%가 '아니다'라는 반응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反共生活面(공산주의, 북한, 통일·안보)의 全體反應結果를 보면,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가능성(부정적 반응율 71.97%), 자유없는 공산국가에 대한 정서(동정적 반응율 63.73%), 공산주의 전략에 대한 경계심(56.54%), 북한의 호전성(63.44%), 북한 주민의 생활상(동정적 반응율 81.96%), 북한에서의 생존여부(부정적 반응율 72.94%),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95.44%), 우리의 통일문제 해결 방법 지지(86.91%),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저지 능력감(39.3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背景變因別 反應傾向을 보면, 性別의 경우에 個人生活과 國家生活에서는 認知, 情意水準에서, 社會生活과 反共生活에서는 意志水準에서 有意한 差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체로 男子가 女子보다 더 높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

學年別의 경우와 地域別의 경우에 個人生活, 社會生活, 國家生活, 反共生活에 대한 認識性向은 認知, 情意, 意志水準에서 모두가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學年別, 地域別사이에는 價値觀의 差異가 없다 하겠다.

2. 提 言

이상의 研究結果에 비추어 否定的인 反應이 나타난 意識性向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提言을 하려 한다.

가. 個人生活, 社會生活, 國家生活에서 나타난 價値觀을 보면, 認知와 情意水準에서는 높은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意志水準은 비교적 낮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어서 道德教育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나. 남북대화 시대의 道德教育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정통성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教育, 즉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우월성,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등을 강화할 수 있는 教育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다. 특히 앞으로의 反共教育의 方向을 제시해 보면, 첫째 反共教育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화통일의 3원칙에 입각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둘째 反共教育은 목표, 내용, 방법 사이에 일관성 있고 각급 수준에 알맞게 체계화되어야 하고, 셋째 反共教育은 學校를 비롯하여 가정 및 모든 社會의 매체를 통하여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라. 결론적으로, 道德教育은 전통적인 가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가치 탐구식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價値가 內面化되고 合理的인 價値判斷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單 行 本〉

- 金斗憲, “價值觀” 「哲學大事典」, 서울:學院社, 1964.
- 金泰吉, 「새로운 價值觀의 志向」, 서울:민중서관, 1969.
- , 「人間 回復의 序章」, 서울:三星文化財團, 1973.
- 文教部, 「中學校 道德 教師用指導書」,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4.
- 朴容憲, 「價值觀의 本質」, 서울:培英社, 1969.
- , 「社會的 行動과 學習」, 서울:教育出版社, 1976.
- , 「態도와 價值觀의 研究」, 서울:培英社, 1970.
- 朴俊熙, 「韓國人的 教育觀」, 서울:實學社, 1975.
- 李奎浩, “價值觀의 變化와 教育의 課題,” 「새교육」 통권274호, 1977.
- , “價值觀의 變化와 教育의 課題,” 「정경연구」 통권 149호, 1977.
- 洪承稷, 「知識人的 價值觀 研究」, 서울:三英社, 1973.
- 鄭範模, 「價值觀과 教育」, 서울:培英社, 1973.
- 鄭世九, 「價值·態度教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培英社, 1982.
- 外 共著, 「道德科·國民倫理科 指導法」, 서울:教育科學社, 1984.
- Mehlinger, 鄭世九外共著, 「社會科 教育핸드북」, 서울:教育科學社, 1984.
- 鄭元植, 「教育環境論」, 서울:교육출판사, 1976.
- , 「情意의 教育」, 서울:培英社, 1969.
- 車京守, 「産業社會 教育問題」, 教育現場全書, 第2卷, 서울:培英社, 1977.
- 黃應淵, 「大學生的 價值觀 및 관련된 變因에 관한 연구」, 서울:益文社, 1975.

〈論 文〉

- 姜學碩, “高等學校 學生들의 價值觀 研究,” 「教育研究」, 1970.
- 高性俊,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 意義에 관한 序說的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第11輯, 1980.
- 金誠一, “價值觀 教育의 改善을 위한 基礎研究,” 韓國教育開發院, 1977. 12.
- 金誠一·洪大植, “韓國學生의 國家觀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教育開發院, 1976.

- 金泰吉. “現代社會와 價値觀의 問題” 「國民倫理研究」, 제 5 호, 1976.
- 金恒元. “濟州道 住民들의 反共意識 調査研究.” 濟州大學 「論文集(사회과학편)」 제13집, 1981.
- 朴九守. “教師의 價値觀 傾向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朴明雨. “女高生の 價値觀에 관한 調査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朴榮吉. “高等學生의 價値觀 및 生活意識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 申憲植.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0.
- 安鎮植. “靑少年의 家庭環境과 價値觀의 關係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0.
- 李善宰. “靑少年 善導를 위한 價値觀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 李承熙. “人文·實業系 高等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比較研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7.
- 張大榮. “國民學校 學生의 價値觀 調査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 秦君善. “현행 중학교 道德教科書의 內容分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黃吉雄. “韓國 靑少年의 家庭 價値觀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4.
- 洪承稷. “韓國人的 價値觀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 皮晋水. “靑少年 價値觀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 Broudy H. S. *Building of Philosophy of Education*, 1954.
- Kluckhon F. R, and Strodtbeck F. L. *Variation value Orientation*, New York : Row and Co, 1961.
- Linton R. *The cultured Background of Personality*, London : Rowledge and Kogan Paul, 1947.

Newcomb T. M. Turner R. H. and Converse P. E, *Soci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附 錄

질 문 지

이 질문지는 중학생 여러분의 도덕적 가치관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학술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뿐 여러분의 성적이나 신상 문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생각하던 여러분의 진지하고 솔직한 의견을 밝혀 주심으로써 이 연구가 기대한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요령은 다음 <보기>와 같이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보 기 > —

(질문) “인간은 누구나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하여

1.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면

응답지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				

1986년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 교육 전공

강 덕 부 드림

○ 다음의 문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를 하십시오. (1~3번)

1) 여러분의 성별은?

가. 남자() 나. 여자()

2) 여러분의 학년은?

가. 1학년() 나. 2학년() 다. 3학년()

3)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지역은?

가. 제주시 지역() 나. 서귀포시 지역()

다. 북제주군 지역() 라. 남제주군 지역()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해당란에 ○표를 하십시오. (1~36번)

	확실히 그렇다	그것 같다	잘 모른다	아 닐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 모든 사람이 정직해야만이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2. 친구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3. 자신이 하는 일을 남에게 속이지 않는다.					
4. 명랑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5.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					
6. 웃어른과 만났을 때는 인사하고 지낸다.					
7.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8.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9.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실천한다.					
10. 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 여러 사람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다.					
11. 남을 도우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다.					
12.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때 자발적으로 도와준다.					
13. 자기가 맡은 일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14.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다.					
15. 자기가 맡은 일은 꼭 실천한다.					
16.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17. 휴지나 오물을 아무곳이나 버리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18.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					
19.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20. 나는 한국인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1. 우리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감히 싸우겠다.					
22.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23. 우리 민족은 타 민족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24. 기회가 있다면 외국인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겠다.					
25.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26. 새마을 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7. 기회가 주어진다면 향토 사회에 봉사하고 새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					
28.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공산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29. 자유없는 공산주의 국가를 보면 동정이 간다.					
30.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적화 전략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31.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32. 북한의 비참한 주민생활을 보면 동정이 간다.					
33.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북한 공산치하에서 살고 싶다.					
34.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통일이다.					
35. 남북 통일 문제는 이산가족찾기, 서신왕래 등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다.					
36. 북한이 남침한다면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겠다.					
수고 하셨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Value System in Cheju-province

Kang Duk-boo

Dep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t it to practical use as necessary basic material in finding a cure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in improving the method of moral education on the grounds of the problems found out after surveying and analyzi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value system in Cheju-province.

By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es on value system, a conceptual model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value system is made. In the level of contents, it is classified into private living, social living, national living and anti-communist living. The related components of these domains are analyzed into the virtue components generally dealt with in the present middle school curriculum. Private living is classified into honesty, politeness and bravery; social living into co-operation, unity, responsibility and the spirit of obeying laws; national living into national pride and Saemaul Undong (New Community Movement), and anti-communist living deals with communism, north-Korea, unification and security. In the level of behavior the model of concept is classified into cognition, affection and will be based on the theory of attitude construction.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36 items for answer and these items were measured by Likert scale.

Cheju island was demarcated into Cheju city, Seogipo city, North-Cheju county and South-Cheju county, and 1,440 middle school students were given questionnaires t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6.

complete. The 1,440 students were from 8 schools (4 girls and 4 boys) in different regions. The teacher in charge of moral studies withdrew the completed questionnaires after the investigation. A total of the collected are 1,031 contained practical data suitable for analysis and subsequently these data were computerized. In this study, statistical figures are analyzed in terms of mean (M), percentage (%) and T and F check.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analysis of private living dormain, 76.44% answers were in the affirmative but 11.32% were given contradictory responses. The 76.44% affirmativ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contents level and behavior level and the results show ; honesty (cognition 87.39% affection 88.17%, will 47.91%), politeness (cognition 92.72%, affection 79.54%, will 65.95%), bravery and perseverance (cognition 87.49%, affection 84.29%, will 54.51%). It is interesting to note in those figures that the ratio of affirmative response in the will-level is comparatively low.

In the social living dormain, affirmative response is 75.05% and negative is 10.39%. The affirmative response of 75.05% is classified into contents level and behavior level ; collaboration and unity (cognition 64.30%, affection 86.42%, will 56.06%), responsibility (cognition 93.60%, affection 81.96%, will 61.00%), the spirit of obeying laws (cognition 95.25%, affection 86.62%, will 50.24%). It is noteworthy that the will-level of the spirit of obeying laws shows a low ratio of affirmative response (50.24%).

In the dormain of national living, there were 77.84% affirmative responses and 5.24% negative. The affirmative responses of 77.84% is classified into contents level and behavior level ; amor patriae (cognition 91.46%, affection 85.06%, will 59.46%), national pride (cognition 94.18%, affection 77.02%, will 76.72%), Saemaul Undong (cognition 64.60%, affection 89.91%, will 62.17%). Though the affirmative is shown over all the levels, it is noticeable that there were 16.92% 'don't knows' and 5.24% 'nays.'

The affirmative responses from the dormain of anti-communist living were as follows ; the possibility of a communist society (negative 71.97%), compassion for the communist nations having no liberty (felt compassion 63.73%), vigilance on communist strategy (56.54%), the belligerence of North-Koerea (affirmative 63.44%), conditions of living in North-Korea (sympathic responses, 81.96%), yes or no of living in North-Koera (negative

72.94%), recognition of our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95.44%), support of our method of solving the problem on unification (86.91%), the possibility of hampering the provocation of North-Korea (39.38%).

The questionnaires revealed that our policy and method of unification had the approval of most middle school students but in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preparedness 40.74% had no idea and 17.98% said nay.

According to variables of background, males' response showed higher affirmative than females' in cognition and affection levels of private living and national living and in the will level of anti-communist living.

There were no conspicuous differences in cognition levels, affection levels and will levels between private living, national living, social living and anti-communist living depending on grade and region. Thus, there is no difference in value system by grade and region.